

나비·황금박쥐 따라 초록 생태체험



순금과 은으로 제작된 황금박쥐 조형물.



국제나비생태관에 전시된 나비.

■ 여름 무르익은 함평 엑스포공원

색색의 봄꽃과 나비로 물들었던 함평 들녘이 진해져 가는 햇살 아래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봄 나비를 쫓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함평엑스포공원에도 여름이 한창이다. 공원을 내려다 보고 서있는 산등성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젖은 땀을 식히며, 나비와 황금박쥐를 따라 여름을 만끽해볼 수 있다.

◁나비의 고장=지난해 봄 함평엑스포공원에서는 세계 유일의 곤충을 소재로 한 친환경 엑스포인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52-1번지의 함평엑스포공원은 '나비의 고장'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엑스포회장을 비롯해 화양근린공원과 생태학습장 등 3개 구역을 합쳐 734,682㎡규모를 자랑하는 함평엑스포공원에는 국제나비생태관,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원예치료관 등이 상시 운영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올 초에는 느티나무, 조팝나무, 소나무 등의 경관 수목으로 새 단장을 하는 등 생태체험관광의 메카로 변신하고 있다.

▷생태체험관광의 메카=관람객들을 맞이하는 입구에서부터 눈이 즐겁다. 당장이라도 비상할 것 같은 나비 조형물이 맞이하는 정문을 지나 공원으로 들어선다. 개미, 풍뎉이, 무

당벌레 등 공원 곳곳에는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곤충 캐릭터 모형들이 자리를 지키고 서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카페와 앞에 이내 관람객들은 곤충 친구들과 포즈를 취한다.

국제나비생태관 앞에 엮여 있는 커다란 장수하늘소 모형앞에서는 세대가 엇갈린다.

풀숲을 누비다 장수하늘소를 잡기라도 한 날은 값비싼 장난감을 얻기라도 한 듯 의기양양했던 앞선 세대의 어른들에게는 향수의 상징물,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서 겨우 하늘만 올려보며 살아온 신세대들에게는 이름 모를 커다란 곤충 한 마리가 된다.

하지만 나비생태관안에서는 세대를 벗어난 똑같은 탄성이 나온다.

물감으로 그려놓은 듯 알록달록 고운 빛깔의 나비들이 활짝 날개를 편 채 요염한 자태를 뽐낸다.

전국곳곳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들이 한 자

리에 모인 민물고기과학관도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자연교실이 된다. 나비생태관과 함께 위치한 이곳에는 자가사리, 깍지리 등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민물 고기에서부터 영화를 통해 유명해진 쉼리까지 여유롭게 물속을 노닐고 있다.

오밀조밀 산책로를 따라 황금박쥐생태전시관으로 걸음을 옮긴다.

공원을 내려다 보고 있는 수산봉의 나비동산에도 여름이 찾아왔다. 철쭉으로 붉던 산등성 나비 모습이 푸른 빛으로 변해 있다. 공원 한쪽에 수줍게 피어있는 수련을 지나 층층계단을 따라 멸종 위기 포유동물 1호이자 천연기념물 제452호인 황금박쥐를 만나러 간다.

계단 위 광장에 귀여운 박쥐 모형과 곤충 모형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들쭉이 핀 산책길을 따라 도착한 황금박쥐생태전시관은 입구부터 심상치 않다.

마치 동굴에 온 듯 어두컴컴한 길을 따라 지하로 내려간다. 동굴 탐험이라도 나선 것처럼 조심조심 한 걸음 옮기면 아기자기한 전시관이 나온다.

매표소에서 받은 자동안내음향시스템에서는 황금박쥐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흘러나온다. 살아 움직이는 황금박쥐는 없지만 박쥐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걸음을 옮기던 관람객들 '함평천지 대황금박쥐'라는 조형물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진다.

가로 1.5m, 높이 2.18m의 원형 안에 4마리의 황금박쥐가 날개를 펴고 있다. 중앙 상단에는 대형 황금박쥐가 웅장한 모습을 자랑한다. 이 조형물이 눈길을 끄는 것은 말 그대로 '황금'박쥐이기 때문이다. 박쥐 모형은 162kg에 달하는 순금으로 만들었다. 원단도 281kg의 은으로 만들어졌다.

(나비생태관, 원예치료관, 황금박쥐생태관 포함 관람료는 어른 5천원. 어린이·경로 2천 500원.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전화 061-320-2214.)

▷가을을 기다리는 국화=나비의 고운 자태로 상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함평엑스포공원, 올 가을에는 그윽한 국화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된다.

지난해에만 4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자연생태공원에서 엑스포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치러질 예정이다.

오는 10월29일부터 11월22일까지 25일간 함평엑스포공원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형형색색의 국화들로 한 폭의 수채화가 된다.

계절에 따라 새 옷을 갈아입으며 봄을 맞고 가을을 보내는 함평엑스포공원. 이곳의 7월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푸른 녹색이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수산봉 나비동산에서 내려다 본 함평엑스포공원의 전경. 나비축제의 열기로 뜨거웠던 공원이 여름철 생태체험공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주제영상관 앞에 꾸며놓은 곤충 캐릭터들.

3만원의 행복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획일화 대책!!!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http://edu.ingang.go.kr>

강남구의 두뇌교육인프라를 최신했 시화

연회비 3만원에 7,500장의 무료 수강

- 전국 100여개 교육기관, 학생 10만 명, 학부모 10만 명
- 무료수강료, 1차 100명, 2차 100명, 3차 100명
- 학교/지역/직업별 '온라인' 강의 개설
- 수능/내신/영어/수학/과학/국어/영어/수학
- 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

☎ 02-1577-9100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교육시설 최고의 학습시스템

일반직 공무원 특채 (가능직→일반직)

'09년 10월 24일(토) 필기시험 대비 예정

주말 특별 단독반 7월4일(토) 개강

이른반 2개월(7/4-8/30) 진도 완벽 완성

사회(김영재 교수) 매주 토요일 13:00-21:00 (8시간 8주)

행정(김익철 교수) 매주 일요일 10:00-16:00 (8시간 8주)

합수 있다는 믿음! 동부고시학원에서 믿음이 있습니다. www.dongbukugosi.com

1 동부고시학원 동부구청서 배드민 233-0509